

봉쇄·점거·감금·탈출...막장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 놓고 충돌 문의장 바른미래 사보임 허가 한국당, 채이배 6시간 감금 사개특위 등 회의장 3곳 점거



25일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인 채이배 의원(왼쪽 두번째)이 자유한국당 저지를 뚫고 운영위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관철하려는 여야 4당과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25일 뚫싸움도 불사하며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장경의 무대가 된 국회는 고성과 욕설로 얼룩지며 막장의 끝을 내뿜었고, 상대방을 향한 각종 고소 고발이 난무해 패스트트랙 지정이 끝나더라도 소송에 따른 법적 다툼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개특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을 강행한데 이어 오후에는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으로 사보임을 단행했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개특위 의결정족수(11명·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 부족 사태가 예견됐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였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한명의 이탈만 있어도 패스트트랙은 물건너간다.

다만 당 지도부는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모여 인편 점수를 저지함에 따라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문화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했다.

오 의원이 사보임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과의 마찰 끝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병상 결재'가 이뤄졌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자당 소속 사개특위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고, 문 의장은 구두로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양당 사개특위 위원 등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사법개혁 법안의 최종 조율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매듭짓겠다는 목표 아래 해당 특위

위원들에게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육탄 저지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신환 의원 격격으로 자당 소속 사개특위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고, 문 의장은 구두로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보좌진, 당직자 총동원령을 내리고 전날 밤부터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회의장들을 점거했다. 정개특위 회의가 주로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445호)과 사개특위 회의장인 245호, 220호 회의실이 대상

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법안 조율 작업이 이뤄진 운영위 회의실 앞에서 모여 "밀실야합 철폐하라", "좌파독재 장기 집권 음모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헌법 유린, 법률 위반, 관습 무시, 합의 파기로 대한민국 정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마지막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장내 투쟁에 더해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 등이 참석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계획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부 6조7천억 규모 추경안 국회 제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6조7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 의안과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관계자로부터 2019년도 추경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엔 국무총리 시정연설 청취 후 기획재정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추경안을 처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은 5월 중 반드시 처리돼 상반기 중

추경예산이 현장에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고 있어 추경안 심사와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4월 임시국회내 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추경이 산불 대책 등 민생 문제인 만큼 한국당도 결국 심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경안이 꼭 막힌 국회의 물고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靑 새 대변인에 고민정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고가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후임에 고민정(40) 부대변인을 내정했다.

고 신임 대변인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의겸 전 대변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3번째이자 현 청와대 첫 여성 대변인으로 기록되게 됐다.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해 2년 가까이 선인행정관급 부대변인을 지낸 고 대변인은 지난 1월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그는 2004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문 대통령의 영입으로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을 지냈다.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 인사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된 것은 참여정부 당시 송경희 전 KBS 아나운서에 이어 이번

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이미선·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문 대통령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백악실로 이동해 30분 간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불신임 묻겠다” vs “한국당 돌아가라” 쪼개진 바른미래

사보임 갈등 폭발 바른정당계 집단행동 예고 오늘 긴급 의총 분수령

4·3 보궐선거 참패와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란을 계기로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분당 수준으로 접어들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유승민계'로도 불리는 바른정당계, 국민의당 출신 가운데 안철수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안철수계' 그리고 호남에 지역 기반을 둔 '호남계' 등으로 나뉜 상태다. 우선 유승민 전 공동대표

를 필두로 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오신환 의원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극렬히 반발,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일단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26일 열린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손 대표의 탄핵과 김관영 원내대표 불신임을 물을 계획이다. 여기에 안철수계 인사들 역시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 당내 분열상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양상이다. 이날 '오 의원 사보임 반대' 문건에 서명한 의원은 총 13명으로, 바른정당계 의원 8명 외에도 김삼화·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로 분류된 의원 5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내 지지를 기반으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패스트트랙을 성사시킨 만큼 기세를 몰아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대표 측은 "유승민 의원은 꼭두각시들을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라"는 작심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원권 정치 상태인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과 당내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 의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4명이다. 이 가운데 안철수·유승민계는 적어도 13~15명으로 집계된다. 제3지대를 기대하고 있는 호남계가 의원수에

서는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버티고 있어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는 공동 창당 세력으로서 일단 당을 '재건'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사퇴론이 불거질 즈음부터 양 세력은 물밑에서 꾸준히 만나 향후 지도부 체제를 논의해 왔다는 후문이다. 이에 맞서 그동안 말을 아꼈던 호남계도 논란이 어느정도 진정되면 세를 규합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5월부터 분당의 움직임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정인 “트럼프, 방한 요청 수락한 듯”

DJ·盧 재단 공동학술회의 참석...“비핵화 판 살려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한 요청을 아마 수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도서관·노무현재단 공동학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국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5월 25~28일 일본에 간다. 그리고 나서 중국에 갈 수 있는데 그사이 꼭 한국에 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우선 비핵화 판을 살려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 개최, 북한의 초기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움직여야 한다”며 “5월 중순 이전에 남북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초기 행동을 취해줬으면 좋겠다”며 “동창리 미사일 시설 등을 유관국 참관하여 폐기하겠다는 화두를 던지면 모멘텀을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제재 만능주의가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며 “제재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므로, 북한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선 제재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시행하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2019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은 무엇인가요?**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수업과 자신만의 콘텐츠, 영상 제작 기법 등의 수업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나만의 영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
- **모집개요**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우선)	미래사회의 준비된 나, 마음발전, 감정탐색, 1인 미디어 개론, 현역 크리에이터와의 만남, 영상기획, 촬영, 편집, 현장 견학 등	48시간	20명

- **모집기간** 2019. 04. 08(월) ~ 2019. 04. 23(화)
- **교육기간** 2019. 04. 24(수) ~ 2019. 08. 07(수)
- **교육시간** 매주 수 18:00 ~ 21:00
-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강의실 및 실습실
- **교육특전** 교육비 지원,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등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및 메일 접수(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접수처** 우) 62396 광주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1층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의** 062) 950-3583~5

주최 |  광주광역시 SWANGJU CITY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